

# YES24 상반기 결산 리포트 하반기엔 ‘해리포터, 코엘류, 댄 브라운 폭풍’ 몰려올 기세

글 김병희 YES24(주) 도서2팀장

2005년 상반기, 독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읽었다. 자기계발보다는 소설을 선택했고, 자기계발 도서 중에도 이야기가 있는 책을 골랐다. 그림책 베스트셀러는 줄었고, 학습만화가 많이 팔렸다. 아주 구체적인 소재를 다룬 학습 비결, 교육 지침서들도 잇달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 어린이를 학습시키는 데에 집중했다.

YES24 상반기 베스트셀러 20위 도서 가운데 6권이 소설이다. 지난해에 이어 판매가 여전했던 《다빈치 코드》를 비롯해서 《연금술사》《미실》《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파이 이야기》《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까지. 특히 해외 작가들의 다양한 소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소설 외에도 류시화의 시모음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20위 안에 들었다.

2004년 《아침형 인간》으로 정점에 올랐던 자기계발 관련 도서들은 상반기 동안 이렇다 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시간 관리, 인맥 관리, 재테크 등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이미 모두 출판되었기 때문인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게 벼거워 보인다.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미운 오리 새끼의 출근》은 자기계발 도서로 분류되지만, 내용면에서는 문학서라고 해도 될 만큼 이야기 중심이다. 구체적인 소재를 다루기보다는 읽기 쉬운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2005년의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듯하다.

비즈니스 분야의 키워드는 단연 혁신이었다. 10년 후 한국 사회상과 마케팅 트렌드를 예상한 《2010 대한민국 트렌드》와 함께 《블루 옵션 전략》이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처절한 경쟁 속에서 실의 없는 승부를 벌이기보다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블루 옵션을 개척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진대재 장관의 추천으로 화제가 된 후 혁신을 비즈니스 출판의 화두로 끌어올렸다. 《이노베이터》, 《미래 기업의 조건》 등이 기업 혁신을 소재로 한 신간들이다.

유아와 어린이도서의 경우, 그림책 베스트셀러가 눈에 띠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매년 서너 종 정도 그림 동화책이 대형 베

스트셀러가 되곤 했는데, 올 상반기엔 그림책보다는 만화책이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계속 출간되고 있는 마법천지문 시리즈가 연이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고, 개정판이 속속 출간되고 있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도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 2005년의 부모님들께서는 학습 만화책을 자주 고른 셈이다.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두뇌의 힘을 키워라》《평생 성적, 초등 4학년에 결정된다》와 같은 교육 관련 도서들의 판매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 학습법 관련 도서들은 갈수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고 있다. 특목고, 영어권 고등학교 진학, 아이비리그 입학 등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도서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종교도서를 몇 권 찾을 수 있다. 《목적이 이끄는 삶》《긍정의 힘》 등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상위에 올랐다. 소설 등 이른바 일반 단행본보다는 좁은 독자층을 가진 종교 관련서이지만 번역 전부터 국내에 알려질 정도로 많은 원서 판매량을 기반으로 기독교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상반기 최고의 화제를 몰고 왔던 인물은 황우석 박사였는데, 관련 도서들이 그다지 많이 팔리지는 않았다. 출판시장에서는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의 안철수 씨가 큰 호응을 얻었다.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은 특유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쓴 경영 에세이로 공중파 방송에서 소개된 후 부쩍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하반기 출판시장의 최대 이슈는 역시 해리 포터 6권의 출간이다. 예약판매 시작과 동시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오르면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입원서 판매량이 만만찮다. 여기에 파울로 코엘류, 댄 브라운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소설이 속속 출간되면서 문학 독자들은 하반기 내내 즐거울 듯하다. 반면, 자기계발, 비즈니스 분야는 새로운 소재 발굴에 고심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비즈니스 출판사들이야말로 혁신을 통해 블루 옵션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